

# 부모님용 연애

‘부모님용 연애’를 하는 당신에게 연애는 가족의 가치를 승계할 파트너를 찾는 활동입니다. 전통적인 규범을 중요시하고 보수적인 당신은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상대와 연애를 거쳐 결혼을 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고 키워주신 분들에 대한 의리이고 의무라고 믿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그 분들을 닮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결혼을 하고 살아오신 부모님이나 연애와 결혼에 대한 그분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현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연애와 결혼의 주체자는 자신과 연인 개인이 아닌 두 집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개성과 상대의 개성이 잘 맞는지, 둘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기보다, 또 다른 주체자라고 생각하는 양가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릅니다. 연인을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님의 마음에 들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신경을 쓰고요. ‘우리 엄마한테 잘 해’나 ‘우리 아빠한테 잘 해’라는 말을 자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정적이고, 집안도 괜찮고, 직장도 좋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괜찮은 상대라고 말한다면 갑자기 상대방이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자신이 이상적인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연애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누가 안 그런가요?”하고 당신은 반문할 수도 있지만, ‘결혼 연애’형인 당신에게는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당신에게 연애와 결혼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안정적이고 괜찮게 살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표식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연애나 결혼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려본 적이 별로 없으며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죠.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정도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연애, 특히 결혼은 중요하다는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불화가 있어도 양가 부모님을 위해서 쉽게 갈라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족을 독립적인 집단이기보다는 대가족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 부모님용 연애

집단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도 희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또, 상대방이 '괜찮게 보일 수 있는' 학벌, 연봉, 집안 등 굵직한 조건을 갖춘 사람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결혼 뿐 아니라 연애 상대에서도 말입니다.

현재 연애를 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자신의 기준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미래에 부모님의 소원을 영혼 없이 따르며 사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현재 연애를 하고 있지 않는데 시작을 하고 싶다면, 현재 현실적인 기준에 있어서 눈이 조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조금 낮추고, 부모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연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누가 있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아닌 '나'는 도대체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지 알고 싶다면 '결혼 유형 검사(WMC)'를 추천합니다. 또, 자신을 알고 돌아보기 위해서는 '성격 검사(WPI)'도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